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전북 경제 도약 출발점”

###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민선9기 경제 도약 위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현대차 투자협약 후속조치·앵커기업 유치 최우선... 종합적 성장전략 필요

전북지역 기업들은 민선9기 지방정부와 전북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김제상공회의소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9기 전북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구 감소 및 청년 인재 유출'(32.2%)이 꼽혔다. 이어 '타 지역 대비 투자유인책 부족'(22.4%), '신성장 동력 부재'(18.3%), '인프라 및 입지 경쟁력 부족'(18.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과 인재, 인프라를 연계한 종합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분야에서는 '금융·세제 등 자금 지원 강화'(24.8%)와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22.5%)가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어 '신산업 전환 및 연구개발(R&D) 지원'(15.4%),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15.0%), '기업 규제 완화'(13.8%)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기적 지원보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 성장동력으로는 '피지컬 AI·

미래 모빌리티'(31.4%)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으로는 '재만금국제공항 건설'(26.2%)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이어 '전주~세종·전주~무주 광역 고속도로망 확충'(17.0%),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16.0%) 등이 뒤를 이었다.

민선9기 지방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현대차 투자협약 후속조치 및 앵커기업 유치'(29.5%)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청년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18.0%), '피지컬 AI 등 산업 생태계 강화'(14.7%), '공공기관 추가 이전'(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개별 지

원사업 확대보다 기업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미래산업 육성, 청년 정주,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성장전략을 민선9기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민선9기 전북 경제 도약의 출발점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투자협약의 후속조치와 앵커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와 미래산업 육성, 청년 정주,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전북의 투자 경쟁력을 높이고 민선9기 전북 경제 도약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햇양과 2년 연속 대만 수출

### 전북농협, 수출 선적식 가져... 양파 가격 안정 총력

전북농협이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한 양파의 수급 안정을 위해 대만 수출에 나섰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29일 전주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026년산 햇양파 대만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올해 양파 생산량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국내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월 농산물 추계에 따르면 올해 조생종 양파는 수출이 증가하고 높은 기온으로 생육 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약

24만 톤으로 평년(20만9천 톤)보다 15% 증가했다. 반면 가격은 kg당 510원으로 평년(853원) 대비 약 40% 하락했다.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중반생종 출하 조절과 정부 비축, 수출 지원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현재 시세는 kg당 700원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은 국내 공급량을 조절하고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대만 수출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만 수출에 성공했다. /오상근 기자

## 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담당자 대상 안전 워크숍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5일 청주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 공사계획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설비 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는 지난 25일 청주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 공사계획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설비 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사계획신고 단계부터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계획신고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신고 제도와 사전기술검토 제도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워크숍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K-뷰티 사우디 진출 지원 참여기업 모집

### 전북중기청, 7월 23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도내 K-뷰티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공략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중소기업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상공회 대한민국대사관이 'K-뷰티 사우디 진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7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K-뷰티의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지 정보와 유통 네트워크 부족, 까다로운 수출 규제 등으로 중소 브랜드의 시장 진출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

기 위해 사우디 현지 유통·판매망을 보유한 기업들과 협력해 추진된다. 선정된 기업은 사우디 현지 유통매장과 정부기관 방문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정부 수출 규제 대응 상담 등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우디 최대 뷰티·웰니스 유통기업인 화이트스(Whites)를 포함한 20여 개 현지 유통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참여기업 모집이 완료되면 국내를 방문해 서류평가와 면담을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직접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화장품제조업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제조업등록필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2024년과 2025년 K-수출전략품목 지정 기업은 서류평가가 면제된다. /오상근 기자

## 바이오진흥원, 전북 농식품기업 AI 마케팅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농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마케팅 교육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29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2026 농식품 디지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전농식품 마

케팅 활성화 지원사업'과 '2026년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환경 변화와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에 대응해 도내 농식품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소셜홍보마케팅 연구소 김진 대표가 'AI 활용 식품 디지털마케팅 및 콘텐츠 전략'을 주제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방법과 온라인 홍보 전략,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주)모던토이 박해미 대표는 '식품 유통채널 입점 전략 및 판로개척

사례'를 주제로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진흥원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기준과 생산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참석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기법과 유통채널 입점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실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주상의, 몽골 달란자드가드시와 경제협력 교류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가 전북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몽골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오는 30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몽골 달란자드가드시 경제협력 교류회 및 기업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전주상공회의소와 몽골 달란자드가드시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사업으로, 양 지역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수출과 유통, 투자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최트 데네더르지 달란자드가드시장, 오치르바트 다바체렌 남괴비주 상공회의소 회장 등 몽골 경제사절단과 전북지역 기업인, 김기수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류회에서는 양 지역 주요 인사 간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전북기업과 몽골기업이 참여하는 업종별 기업상담회를 통해 수출과 투자,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